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 선정에 관한 논의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을 중심으로-

박재희(성균관대)

<차 례>

1. 머리말
 2.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기존 논의 검토
 3.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 검토
 4. 대안 제시
 5. 맺음말
-

【머리】 본고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 실려 있는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기준, 불규칙 활용의 범위 또는 유형을 설정함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 같은 연구 성과가 규범 문법인 학교 문법에 반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출판된 4종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도 체계적이지 않아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고에서는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내용의 보완(개념 설명, 불규칙 활용 범위)과 내용의 첨가(체계적 구성, 실생활 적용)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불규칙 활용, 학교 문법, 규범 문법, 교육 내용 선정, 『독서와 문법』

1. 머리말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을 살펴보면 용언의 활용,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불규칙 용언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매우 빈약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같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지식은 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내재화된 문법 지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범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학교 문법에서조차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내재적 문법 지식에 속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은 국어 용언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정확히 기술하고자 하는 문법 학자들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연구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달리 규범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심된 과제로 삼고 있는 학교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 아래 (1)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 (1) ㄱ. 학계에 발표된 불규칙 활용 관련 연구 성과 중에서 어떤 내용을 학교 문법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
- ㄴ. 내재된 문법 지식인 불규칙 활용 관련 내용을 규범적 내용을 다루는 학교 문법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는가?

(1ㄱ)은 불규칙 활용 관련 문법 지식을 규범 문법의 체계 안에서 교육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교육 내용 선정 과정에서 교재 집필자, 국어 교육 연구자 등이 흔히 하게 되는 고민이다. 이에 반해 (1ㄴ)의 고민은 (1ㄱ)에 비해 학교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된 근원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불규칙 활용을 굳이

규범적인 문법 교과서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¹⁾에서는 (1ㄴ)과 같은 고민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4종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2종의 교과서만이 불규칙 활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고, 불규칙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을 생략한 교과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독서와 문법』에서는 전체적으로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이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배제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규범 문법인 『한글맞춤법』에서조차 불규칙 활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규범적인 내용을 담보로 한 학교 문법에서 불규칙 활용 관련 내용을 축소 또는 배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령 2009년 국어과 교육 과정 이전의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수정되어야지 불규칙 활용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생략 또는 축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 제시된 용언의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의 불규칙 활용에 관한 문법 지식을 넓히고 학습자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문법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1)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은 심화 선택 과목 교재이다. 이전 단계에서 배운 문법 내용을 심화 학습하는 단계인 것이다. 『독서와 문법』 과목의 목표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 제 2009-41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과정 해설: 국어」에도 잘 드러나 있다. 「교과과정 해설: 국어」(2009: 157-158) 따르면, 〈단어〉 단원의 목표를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품사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국어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을 심화한 것이다.”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살펴봐도 『독서와 문법』 교재에서 용언의 활용, 불규칙 활용에 관한 내용이 심화될 것을 기대하지 축소 또는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렵다.

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내용이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에 선정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장에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진행돼 왔던 불규칙 활용 관련 논의를 검토해 보고 어떤 내용을 문법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을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이 규범 문법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는지를 대안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

2.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기존 논의 검토

이번 절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불규칙 활용 관련 논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학계의 주된 관심은 (i)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밝히는 것과 (ii)불규칙 활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용언의 활용을 기존 논의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꿈. 또는 그런 일. 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형태를 이르는데, 이로써 시제·서법 따위를 나타낸다”라고 활용을 정의하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 105)은 용언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미의 도움을 받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였으며,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어간에 가지나 잎사귀처럼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주용(1993)은 활용이란 일반적으로 용언이 여러 가지로 어미를 바뀌어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용언의 활용은 어간이 문장의 문법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일이라고 하겠다²⁾.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아래 (2)와 같다.

(2) [먹](어간)- [다/니/의/어서/자/고/으면...](어미)

이제 기존 논의에서 불규칙 활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불규칙 활용을 표준 국어 대사전(1999)에서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기본형으로부터) 달라지는 일. ‘돕다’가 ‘도와’로, ‘오다’가 ‘오너라’로 되는 것 따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불규칙 활용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규칙 활용의 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규칙 활용의 유형과 불규칙 활용에 속하는 용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불규칙 활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둘째, 어

2) 송철의(1995: 274)는 앞서 소개한 논의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활용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활용은 단순히 어미가 바뀌는 현상이 아니라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어 활용형을 형성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즉, 송철의(1995)에서는 활용을 아래(가)와 같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 활용: 먹다, 먹다니, 먹으니, 먹어서, 먹자, 먹고, 먹으면...

(나) 활용: 돕다, 돕다니, 도우니, 도와서, 돕자, 돕고, 도우면...

송철의(1995)의 주장대로라면 불규칙 활용은 달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를 설정하고 활용 시 이들의 변동 상태에 따라 불규칙 활용을 판단했던 기존 접근 방법과는 달리 용언의 활용형을 다른 용언의 활용형과 상호 비교하여 불규칙 활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 단일 기저형을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 기저형을 설정할 것인가도 불규칙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명옥(1985)은 용언 ‘돕다’의 어간의 기저형이 어휘부에 ‘돕-’과 ‘도우-’의 형태로 각각 저장되어 있는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게 되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형이 ‘도우-’로 실현되는 것은 불규칙 활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저형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즉 어간의 복수 기저형을 인정한다면, 민현식(1991: 126)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돕-/도우-}, {묻-/물-}, {짓-/지-}, {고르-/골르-}, {푸르-/푸를-}, {하-/해-}, {노랑-/노래-} 등과 같이 어간 재구조화의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복수 기저형의 상태로 어휘화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간과 어미의 기본형으로부터 벗어난 형태를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인정할 것인가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19세기 말에 출판된 사전류에서부터 근래의 최명옥(1985), 송철의(1995)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영희(2005)에 따르면 19세기에 출판된 『한영증년』에는 ‘ㄹ’ 불규칙, ‘ㅂ’ 불규칙, ‘ㅅ’ 불규칙, ‘ㅇ’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등 불규칙 활용으로 5가지 유형만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한영증년』에 적용된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의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와 달랐음을 의미한다. 현행 국어 문법서와 학교 문법 교과서의 기틀이 된 최현배(1937/1961)의 『우리말본』에서는 ‘ㅂ’ 불규칙, ‘ㅅ’ 불규칙, ‘ㄹ’ 불규칙, ‘ㅇ’ 불규칙, ‘여’ 불규칙, ‘리’ 불규칙, ‘르’ 불규칙, ‘ㅎ’ 불규칙, ‘ㄷ’ 불규칙, ‘우’ 불규칙, ‘거라’ 불규칙, ‘너라’ 불규칙 등 총 12가지 유형을 국어의 불규칙 활용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불규칙 활용의 범위는 연구자들의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불규칙 활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랐다고 하겠다.

한편,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서는 ‘ㄹ’ 불규칙, ‘ㅅ’ 불규칙, ‘ㅎ’ 불규칙, ‘ㄱ, 一’ 불규칙, ‘ㄷ’ 불규칙, ‘ㅂ’ 불규칙, ‘여’ 불규칙, ‘리’ 불규칙, ‘르’ 불규칙 등 총 10개 유형을 불규칙 활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최현배(1961)가 정한 불규칙 활용의 유형과 그 수에서 차이가 난다. 국가적 차원의 규범 문법인 『한글 맞춤법』에서는 총 10개의 유형을 불규칙 활용으로 설정한 이유를 분명히 하였다.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에 관해서는 『한글 맞춤법』은 제15항에서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표기에 있어 어간과 어미의 형태적 기본형을 밝혀 적자는 것이다. 또한 활용형이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으로부터 벗어난 형태, 즉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도 제18항에서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하여 활용형이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에서 벗어난 경우를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분명

히 하였다.

그런데 제18항에 언급된 “원칙에 벗어나면”이라고 구절에서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희승·안병희(1989: 76)의 『한글 맞춤법』 풀이를 살펴보면 “실제 발음과 어그러지게 발음하는 것을 억지로 통일되는 법칙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18항에서 언급한 “원칙”은 음운론적 원칙을 말하며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불규칙 활용에 관한 규정은 용언 활용형의 발음이 어간 그리고 어미의 기본형 발음에서 벗어났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과 같이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과 활용형의 발음을 따져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판단된다면 활용형의 발음이 어간의 기본형과 다른 경우를 모두 불규칙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간 ‘잡-’에 어미 ‘-고’가 결합된 활용형 ‘잡고’는 실제 발음이 [잡꼬]로 어미가 기본형인 ‘-고’에서 ‘-꼬’로 바뀌어 발음된다. 그렇다면 ‘잡고’도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한글 맞춤법』에서 보이고 있는 불규칙 용언의 범위 설정에 관한 문제는 (남기심·고영근 1985)에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아래 (3)에 제시된 용언의 활용형은 기본형의 발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이들은 불규칙 활용에 포함되지 않고 규칙 활용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 (3) 가. 벗어~벗고(벗고), 잊어~잊지(잊지), 쫓아~쫓더니(쫓더니), 갈아~갈다(갈다), 높았다~높더라(높더라)
 나. 낚아서~낚지(낚지), 있어~있지(있지)
 다. 읽어~익지(읽지)~일꼬(읽고), 없었다~없고(없고), 밟아~밟더니(밟더니), 읊으니~읊고(읊고), 앓아~안찌(앓지), 넓으니~널따(넓다), 훑아~할떠니(훑더니) (남기심·고영근 1985:135)

(3)에 제시된 활용형의 발음은 모두 어간 또는 어미의 기본형에서 벗어나 있다. 이 같은 발음의 차이는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본형의 변이(variation) 때문이며, 다시 말하자면 음운 변동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가)에서는 받침 규칙에 따라 ‘ㅅ, ㅈ, ㅊ, ㅌ’ 등의 받침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 ㅂ’으로 변이된 결과이며, (3나)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인 받침 규칙에 따라 쌍받침이 ‘ㄱ, ㄷ’으로 바뀐 것이며, (3다)에서도 겹받침이 자음 어미 앞에서 하나의 받침만을 취한 음운 변동 현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간 ‘잡-’과 어미 ‘-는’의 결합형인 ‘잡는’이 [잡느]으로 발음되는 자음동화도 환경에 따른 음운 변동의 결과이다. 이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은 용언뿐만 아니라 체언에서도 특정한 환경 하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결과이다.

남기심·고영근(1985:136)은 “받침규칙과 자음동화 등에 의한 어간의 변이는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므로 이를 특히 자동적(automatic) 교체라 부르기로 한다”고 하였다. 즉 이들의 논리는 (3)에 제시된 활용형의 발음이 어간 또는 어미의 기본형과 다른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의 결과이지 불규칙 활용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에 포함될 수 있는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이 본래의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에서 벗어난 형태 중에서 자동적 교체를 제외한 비자동적 교체(non-automatic)교체에 의해 형성된 결합형만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남기심·고영근 1985:137)은 『한글 맞춤법』에서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고 있는 ‘으’ 불규칙과 ‘ㄹ’ 불규칙에 대해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모두 자동적 교체에 해당되는 탈락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 (4)와 (5)를 살펴보자.

(4) 가. 쓰고~쓰어(써), 크지~크었다(꼈다)...

나. 담그고~담가아(담가), 아프다~아파아(아파)...

다. 따르고~따^ㄹ아(따라), 다다르면~다다^ㄹ아(다다라)...

치르니~치^ㄹ어(치리), 들르면~들^ㄹ었다(들렀다)...

(남기심 · 고영근 1985:136)

(5) 가. 놀다, 놀고, 놀지, 놀면 ...

나. ① 노는(놀는), 노느냐(놀느냐) ...

② 논(놀은), 놀니다(놀습니다), 노오(놀으오), 노시고(놀으시고)...

(남기심 · 고영근 1985:137)

(4)는 어간 기본형이 ‘으’로 끝나는 용언들로 이들은 어미 ‘-어/-아’와 결합할 때 예외 없이 어간 기본형에서 ‘으’가 탈락한다. (5)의 ‘ㄹ’ 말음인 용언이 ‘-ㄴ-, -ㅁ-, -오, -시-’인 어미와 결합할 때, 말음 ‘ㄹ’이 예외 없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다. 결과적으로 남기심 · 고영근(198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는 용언 활용의 규칙과 불규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이들의 주장은 이후의 여러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왔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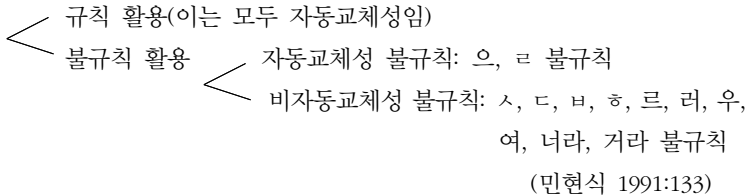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를 기준으로 하여 규칙 활용 용언과 불규칙 활용 용언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관규(2003:160)는 “용언이 활용할 때에 대부분의 용언은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규칙 활용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규칙 용언이라 한다. 이에 비해서 일부의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관규(2003)가 말하고 있는 일정한 규칙이란 남기심 · 고영

4) 박선우(2005)는 용언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 범위’, ‘상보적 분포’, ‘대응 규칙용언의 유무’ 등을 내세웠다. 또한 이를 통해 용언의 불규칙성에 있어서도 강·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선우(2005)의 제안은 불규칙 활용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만 현행 학교 문법의 교육 내용으로 적당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1985)에서 언급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축약 및 탈락’에 해당된다. 또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4종의 『독서와 문법』 중에서 불규칙 활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비상교육>과 <천재교육> 출판된 교과서에서도 ‘으’ 불규칙과 ‘르’ 불규칙을 불규칙 활용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동적·비자동적 교체를 기준으로 하여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학교 문법 교육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동적·비자동적 교체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것은 자칫 학습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음을 지적한 논의도 있었다. 민현식(1991: 133)은 “자동적 교체를 무조건 규칙 활용의 기준으로 보려는 태도는 자칫 오해될 가능성을 교수법상 강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자동적·비자동적 교체를 문법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묻다’가 [문따로 | 묻는]이 [문느]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것은 자동적 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어간 ‘묻’과 모음조사 ‘-어’가 결합할 때 그 결합형이 ‘물어’로 발음되는 것은 비자동적 교체이다. 이처럼 자동적·비자동적 교체를 적용하여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것은 자칫 이론적 문법 지식이 약한 학습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적·비자동적 교체만을 기준으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일 기본형을 중심으로 어형 변화 표상의 계열적 활용관계로 규칙, 불규칙을 이해했던 전통적 태도 (민현식 1991:133)”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민현식(1991)은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의 기준을 전통 문법의 불규칙 활용을 판단하는 태도와 융합하여 아래 (6)과 같이 학교 문법에서 규칙 용언과 불규칙 용언의 범위를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6) 활용의 계열관계



(6)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최현배(1961)가 제안한 12가지 유형의 불규칙 활용을 모두 수용하고 이 중에서 ‘으’ 불규칙과 ‘ㄹ’ 불규칙을 자동성 교체로 분류하여 성격이 다른 불규칙 활용으로 설정하여 문법 교육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처럼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불규칙 활용 관련 논의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계의 성과 중에서 어떤 내용을 학교 문법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 문법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들이 국어 문법 체계와 구조를 배워 다양한 국어 사용 양상과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9:131), 학계의 연구 성과 중에서 다음의 내용은 불규칙 활용 관련 문법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관한 개념 설명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용언이 활용이라는 국어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므로 문법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학계의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규범 문법인 『한글맞춤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어간과 어미를 단일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형태 변화에 따라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개념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적·비자동적 교체는 이론적이어서 직접적으로 학교 문법 교육의 내용으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6)의 민현식(1991)의 제안을 수용하여 (i)음운 변동을 설명하는 단원에서 자동적 교체를 음운 변동의 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ii)품사 단원에서 이를 제외한 불규칙 활용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국어 화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등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 검토

앞 절에서는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국어 문법서나 학계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규범적인 내용을 담보로 한 학교 문법 교육 내용으로 타당한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절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4종의 『독서와 문법』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남기심·고영근(1985)의 제안을 토대로 문법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과 관련된 개념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둘째,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개념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셋째, 불규칙 용언의 범위가 분명히 제시되었는가? 넷째, 음운 변동 현상과 자동적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그럼 우선적으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용언의 활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 『독서와 문법』 4종에 실린 ‘활용’에 대한 설명

교재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
비상교육 (이남호 외)	‘활용’에 대한 명시적 설명 없음
지학사 (이삼형 외)	‘활용’이라는 용어 사용됨 정의: “용언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형태가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어간 뒤에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들을 어미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천재교육 (박영목 외)	1. ‘활용’이라는 용어 사용됨 2. 정의: “용언의 활용은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다.”
미래엔 (윤여탁 외)	‘활용’이라는 용어 사용되지 않음 ‘활용’에 관한 설명 없음

〈표1〉은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4종의 『독서와 문법』에 실린 용언의 활용에 관한 내용이다. 학습자들이 불규칙 활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용의 개념부터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활용의 뜻과 개념에 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마저도 2종의 교과서에서만 확인될 뿐이다. 〈미래엔〉에서 출판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있지 않다⁵⁾.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활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규범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학교 문법의 교육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다음으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불규칙 활용

5) 〈미래엔〉에서 출판된 『독서와 문법II』에서는 학습활동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에 관한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2〉 『독서와 문법』 4종에 실린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

교재	불규칙 활용 개념 설명
비상교육 (이남호 외)	불규칙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이 포함됨 정의: “불규칙 활용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지학사 (이삼형 외)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 없음 〈학습활동〉에서 예를 들고 있음
천재교육 (박영목 외)	1.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예를 들어 설명 함 2. 〈학습활동〉에서 예를 들고 있음
미래엔 (윤여탁 외)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 없음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종의 교과서 중에서 〈비상교육〉에서 출판된 『독서와 문법』에서만 불규칙 활용과 불규칙 용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학사〉와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독서와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대신에 학습활동 영역에서 학습자들에게 불규칙 활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런데 〈미래엔〉에서 출판된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었던 것처럼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설명도 없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불규칙 활용의 범위를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것이다.

〈표3〉 『독서와 문법』 4종에 실린 ‘불규칙 활용’의 범위

교재	불규칙 활용의 범위
비상교육 (이남호 외)	1. 불규칙 활용의 유형 ‘ㅅ’불규칙, ‘ㄷ’ 불규칙, ‘ㅂ’ 불규칙, ‘ㄹ’ 불규칙, ‘ㄱ’ 불규칙, ‘여’ 불규칙, ‘리’ 불규칙, ‘너리’ 불규칙, ‘ㅎ’ 불규칙 2.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불규칙 활용 제시 ‘ㄹ’ 불규칙, ‘ㅅ’ 불규칙, ‘ㅎ’ 불규칙, ‘ㄱ, 一’ 불규칙, ‘ㄷ’ 불규칙, ‘ㅂ’ 불규칙, ‘ㄹ’ 불규칙, ‘리’ 불규칙
지학사 (이삼형 외)	『한글 맞춤법』의 영역에서 ‘ㅂ’ 불규칙만 간략하게 언급
천재교육 (박영목 외)	‘ㅅ’불규칙, ‘ㄷ’불규칙, ‘ㅂ’불규칙, ‘ㄹ’불규칙, ‘우’불규칙, ‘여’불규칙, ‘리’불규칙, ‘너리’불규칙, ‘오’불규칙, ‘ㅎ’불규칙
미래엔 (윤여탁 외)	제시되지 않음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독서와 문법』 교과서뿐이다. 그런데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남기심·고영근(1985)에서 불규칙 활용으로 포함시킨 ‘오’ 불규칙을 불규칙 활용의 한 유형으로 삼고 있는 반면, 〈비상교육〉에서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이에 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다.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용언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은 음운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활용형이 본래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동적 교체인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 불규칙으로 다룬 ‘ㄹ’ 불규칙이나 ‘으’ 불규칙은 이 같은 자동적 교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 ‘ㄹ’ 불규칙과 ‘으’ 불규칙 등과 같은 내용이 음운 변동 현상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4〉 『독서와 문법』 4종에 실린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

교재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
비상교육 (이남호 외)	‘ㄹ’ 탈락: 예) 살+--는 --> 사는
지학사 (이삼형 외)	“ㄹ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 말 자음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놀다: 노니 논 등 “ㅅ 탈락은 동사의 어간 말 자음 ‘ㅅ’이 오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굶다: 그어 그으니 등 “ㅎ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ㅎ’이 ‘ㄴ’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1) 그렇다: 그러니 그럴 등, 예2) 좋다: [조으니], [조은] 등 “ㅡ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ㅡ’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끄다 꺼 꺾다
천재교육 (박영목 외)	“ㅎ 탈락: ‘ㅎ’이 끝소리인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예) 좋으면 [조으면]
미래엔 (윤여탁 외)	‘ㅡ’ 탈락: ‘ㅡ’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ㅡ’ 탈락이라고 한다. 예) 크+어서 --> [커서] 『한글 맞춤법』 제18항 ‘ㄹ’, ‘ㅅ’, ‘ㅎ’, ‘ㅌ’ 탈락을 제시하며 음운 변동과 관련된다고 언급함

4종의 교과서에서는 자동적 교체와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고 부분적으로만 교재에 언급되어 있다. 특히 〈지학사〉에서 출판한 『독서와 문법』에서는 ‘ㄹ’ 탈락과 ‘ㅡ’ 탈락뿐만 아니라 ‘ㅅ’ 불규칙과 ‘ㅎ’ 불규칙을 모두 음운의 탈락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상교육〉에서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ㄹ’ 탈락은 설명하고 있지만 ‘ㅡ’ 탈락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천재교육〉에서 출판된 교과서에서는 ‘ㅎ’ 탈락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ㄹ’ 탈락과 ‘ㅡ’ 탈락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래엔〉에서 출판한 교과서에서는 ‘ㅡ’ 탈락만을 설명하고 있고 『한글 맞춤법』 제18항을 소개하며 ‘ㄹ’ 불규칙, ‘ㅅ’ 불규칙, ‘ㅎ’ 불규칙, 그리고 ‘ㅌ’ 불규칙을 모두 음운 변동 현상인 탈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활용의 개념,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의 범위와 자동적 교체에 따른 음운 변동 현상 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본고 첫머리에 언급하였다시피 불규칙 활용 교육 내용은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대폭 축소 또는 배제되어 국어 용언의 중요한 특징인 활용에 관해서 학습자들이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대안 제시

앞 절 말미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내용은 (i)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문법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ii)선정된 교육 내용마저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교육 내용 선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⁶⁾.

①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으로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용언의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이 불충분하다. 불규칙 활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 없이는 학습자들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념 설명은 용어 설명과는 차별화된다. 용어 설명은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정의된 사전적 해설을 말한다. 이 같

6) 익명의 심사자로부터 문법 교과서의 집필 시 교과서의 분량 제한으로 인해 모든 문법적 내용을 한 권의 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고 하며, 불규칙 활용 관련 문법 내용도 현행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내용과 같이 축소되서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는 언급이 있었다. 물론 지면 제한으로 인해 전문적인 문법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어 용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언의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관한 내용의 학습을 필수적이다. 따라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축소 또는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은 사전적 해설은 문법적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단순히 암기할 것을 강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개념 설명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활용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체언과 조사의 결합과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비교하여 학습자들이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개념 설명을 위해 교재 구성에 있어서도 학습활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습활동 영역에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조사와 어미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② 불규칙 활용의 범위(불규칙 용언의 범위)와 관련하여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4종의 『독서와 문법』을 검토해 보면 불규칙 활용의 범위는 교과서 별로 그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차이는 물론 교재 집필자의 직관과 집필자가 어떤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계에 서조차 아직 불규칙 활용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 문법에서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정하자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이다. 따라서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 제시되는 불규칙 활용 범위도 일정 정도 통일된 규범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현재와 같이 불규칙 활용 범위가 교재마다 서로 다르면 <미래엔> 교과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적 차원의 규범 문법인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불규칙 활용을 기준으로 하고, ‘ㄹ’ 불규칙과 ‘으’ 불규칙만을 음운 변동 현상으로 처리하여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도 학습자들에게 불규칙 활용 범위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불규칙 활용을 다루는 내용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앞 절 말미에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4종의 『독서와 문법』을 검토해 보면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활용의 불규칙성을 음운 변동 현상으로 처리할 것인지 불규칙 활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 전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진다. 즉, 어떤 활용형을 불규칙 활용으로 규정하고 어떤 활용형을 자동적 교체(음운 변동 현상)로 규정할 것인지가 전체 교과서에 모두 통일적으로 제시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개별 교과서에서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불규칙 활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재 개발자들이 자동적 교체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짓고 교재 개발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ㅎ’ 불규칙 대신에 ‘ㅎ’ 탈락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학사>에서 출판한 『독서와 문법』에서는 어간 말음이 ‘ㅎ’인 용언들은 모두 ‘ㅎ’이 탈락되는 자동적 교체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발음에만 적용되는 ‘좋은’의 예와 표기에도 반영되는 ‘노래(노랑+아)’와 같은 예가 함께 제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④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신장을 위해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간행된 『문법』 교과서에서는 학계에서 논의돼 왔던 불규칙 활용과 관련한 문법 지식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이전의 『문법』 교과서의 내용들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이어서 학습자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았고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었다.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은 제시하였지만, 『독서와 문법』의 불규칙 활용 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이 같은 노력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오히려 ‘거치른(거친)’, ‘베품(베뭇)’, ‘날으는(나는)’ 등과 같이 학습자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를 문법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설명함으로서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실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오류의 내용은 ‘품사의 분류’ 단원 맨 첫머리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단원 맨 첫머리 제시하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오류를 통해 학습자들이 활용과 규칙 활용 그리고 불규칙 활용에 관해 흥미를 갖게 할 수 있고, 문법 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현재 문법 교과서에 실린 불규칙 활용 교육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반영된다고 하여도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으로 충분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학습자들이 불규칙 활용 관련 문법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 실린 불규칙 활용 관련 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는 그 동안 불규칙 활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어떤 내용을 학교 문법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없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생략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학습자들에게 올바른 언어생활의 지침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i)불규칙 활용의 개념 설명의 필요성, (ii)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통일된 규범 제시, (iii)설명 체계성, 그리고 (iv)활용의 오류 용례 제시 등과 같은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 탑출판사.
민현식(1991), 「학교문법의 불규칙 활용 교육에 대하여」, 산청어문 19, 123-136.
박선우(2004),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 30, 223-249.
송철의(1995), 「공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273-290.
이관규(2002), 『학교문법론』, 월인.
이영희(2005), 「게일(Gale)의 『한영즈던』 분석적연구」, 국어사연구 5, 국어사학회, 49-76.
이용주(1979), 「한국어 불규칙동사 설정에 대하여」, 산청어문 10, 5-22.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變則動詞) 음운현상에(音韻現象) 대하여 - p-, s-, t- 변칙
동사를(變則動詞) 중심으로 -국어구문론 연구」, 국어학 14, 국어학회, 149-188.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박재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010-3374-9308/ 02-760-0892

jaeheebak@gmail.com

접수 일자 : 3월 10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 3월 17일 ~ 4월 11일

게재 확정 일자 : 4월 14일

〈Abstract〉

The Conjugation of Irregular Verbs in the High School Text Book 『Reading and Grammar』

Bak Jae-Hee(Sungkyunkwan Univ.)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in the high school textbooks 『Reading and Grammar』, which introduced the “conjugation of irregular verbs” in Korean and found a lot of problems in the textbooks. In the textbooks, the part to explain “conjugation of irregular verbs” was not enough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grammar of the irregular pattern of the verbs in Korean and even in the certain version, there is no explanation about irregular verbs at all.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he structural method in these textbooks to explain the irregular verbs looks also problematic. For those reasons, students seems to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grammar related to the irregular verbs if only studying the textbooks nowadays. Thus, this paper proposed 4 alternatives such as (i)explaining the concept of the conjugation of irregular verbs, (ii)displaying the unified conjugation patterns, (iii)illustrating the systematic explanation, and (iv)applying it to the actual life in order to reform the textbooks for the future school grammar.

Key words: conjugation of irregular verb, school grammar, prescriptive grammar, 『Reading and Grammar』